



대전 일·생활 균형 지수, 전국 3위

일·생활·제도·지자체관심도, 모든 영역에서 전년보다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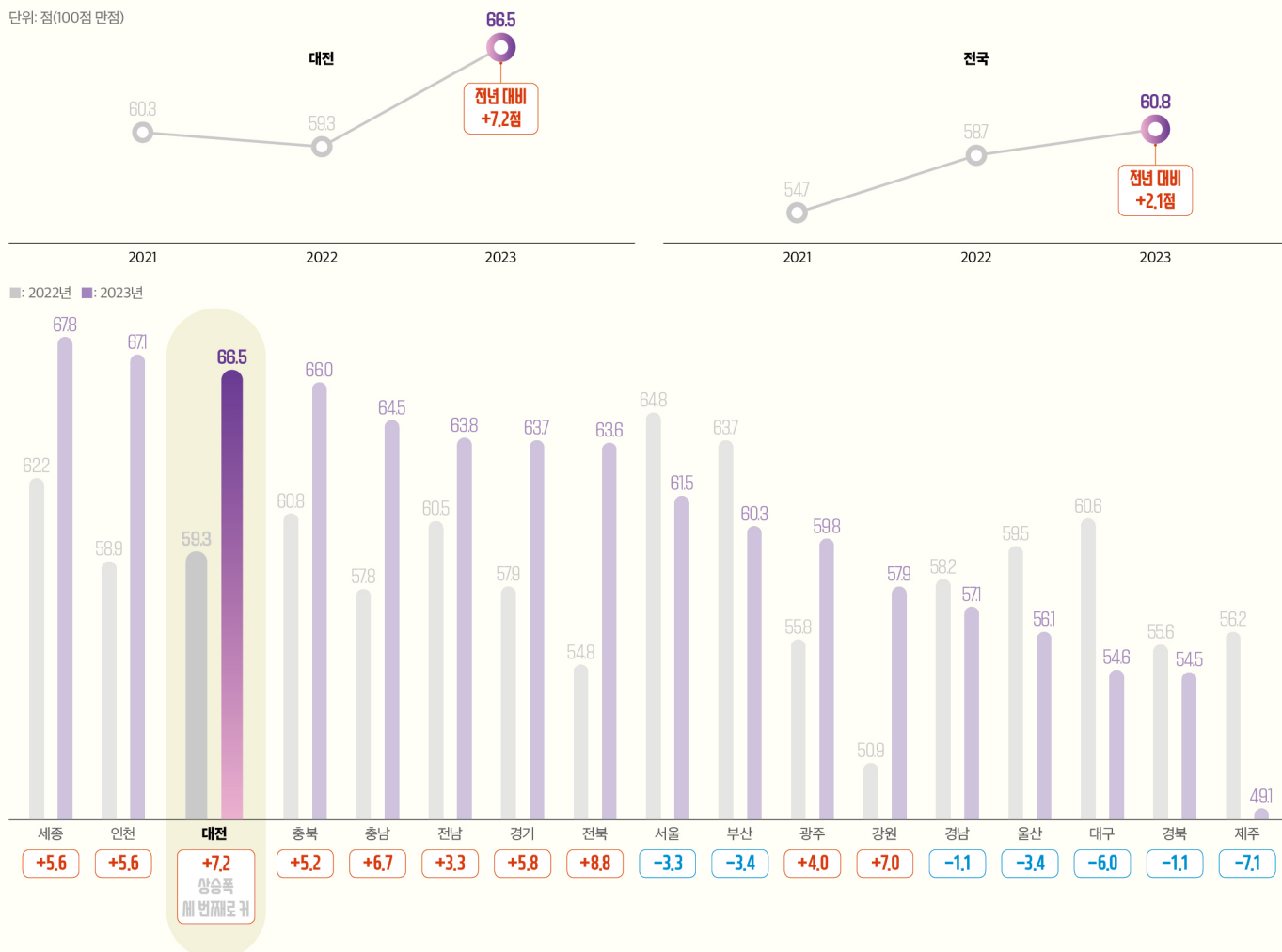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대전은 2023년 66.5점으로 2022년 8위에서 3위로 꺾총 뛰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은 4개 영역 모두 상승했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일'이었다. 점수는 증가했지만 순위가 떨어진 영역은 '지자체 관심도'로 나타났다. 이번 호에서는 대전의 일·생활 균형 지수 변화는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전 일·생활 균형 지수 전년 대비 상승한 66.5점, 전국 3위

전국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1년 54.7점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2023년 60.8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증가했으며, 17개 시·도 중 10개 지역에서 점수가 올랐다. 대전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1년 60.3점에서 2022년 (59.3점)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66.5점으로 전년 대비 7.2점 증가했다. 순위는 다섯 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고, 전북(전년 대비 +8.8점), 인천(전년 대비 +8.2점)에 이어 세 번째로 점수 증가폭이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일·생활 균형 지수(2022 vs 2023)

단위: 점(100점 만점)



·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추이 비교를 위해 '23년 지수는 가점을 제외한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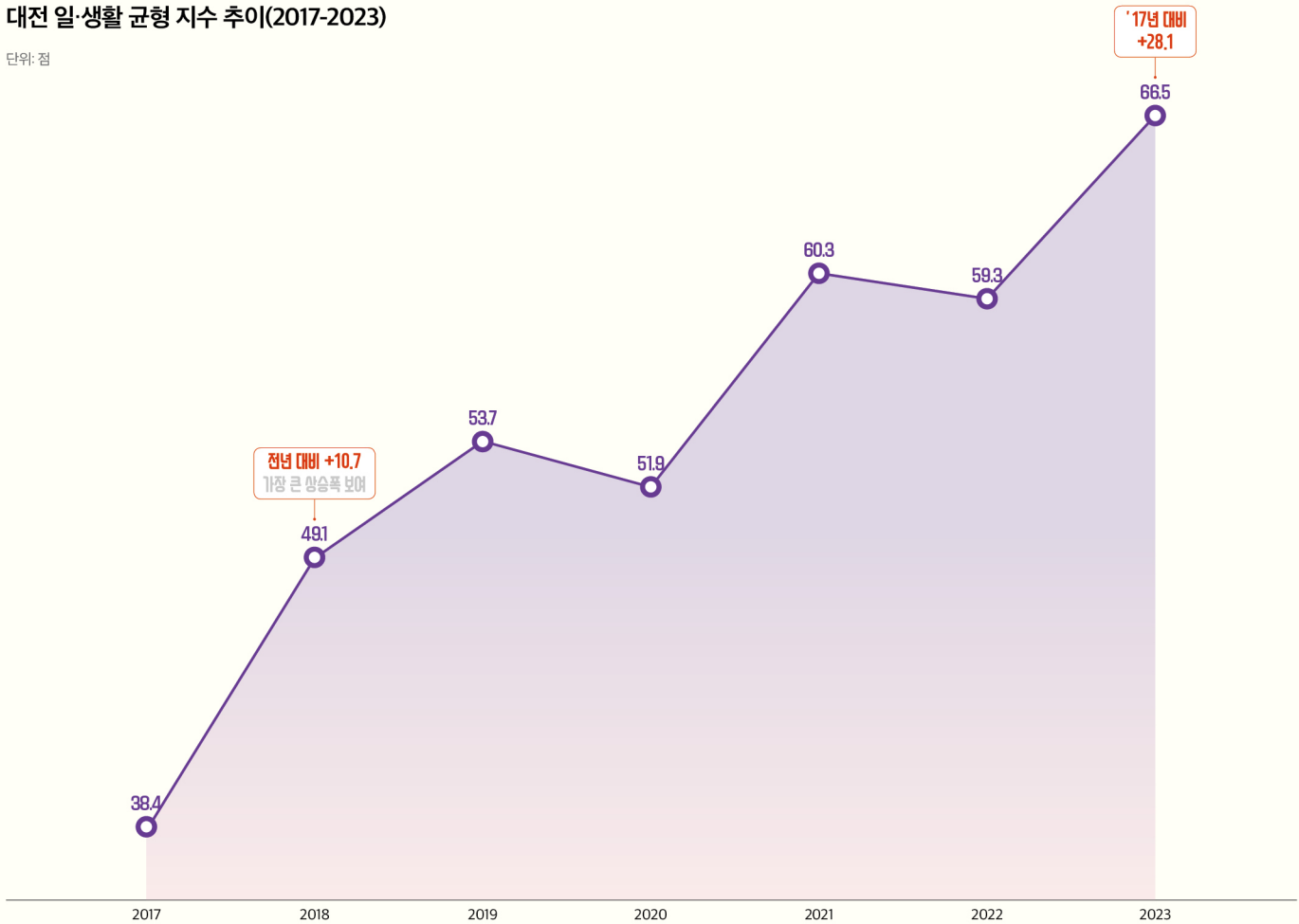
·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대전 워라벨 지수,
2017년 38.4점
→2023년 66.5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수를 개발한 이후 매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전 지역의 일·생활 균형 지수 추이를 짚어보면, 2017년 기준 38.4점에서 해마다 상승하다가 2020년(51.9점) 소폭 하락했다(전년 대비 -1.8점). 이후 2021년 60.3점으로 크게 올랐으나(전년 대비 8.4점), 2022년 다소 주춤했고, 2023년 전년 대비 7.2점 오른 66.5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생활 균형 지수는 유동적인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일과 생활 간 시간적 균형, 인식·태도 균형, 성별 균형 등 영역별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고 어떠한 차이와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전 일·생활 균형 지수 추이(2017-2023)

단위: 점



영역별 지표 구성

일 (22.1)	총근로시간		여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제도 (25.0)
	초과근로 시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휴가기간(1년간 사용한 휴가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행기업)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생활 (30.1)	가족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지자체 관심도 (22.8)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담당조직 유무	
	여가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여가시간(평일)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여가시간 충분도(평일)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가점(5점)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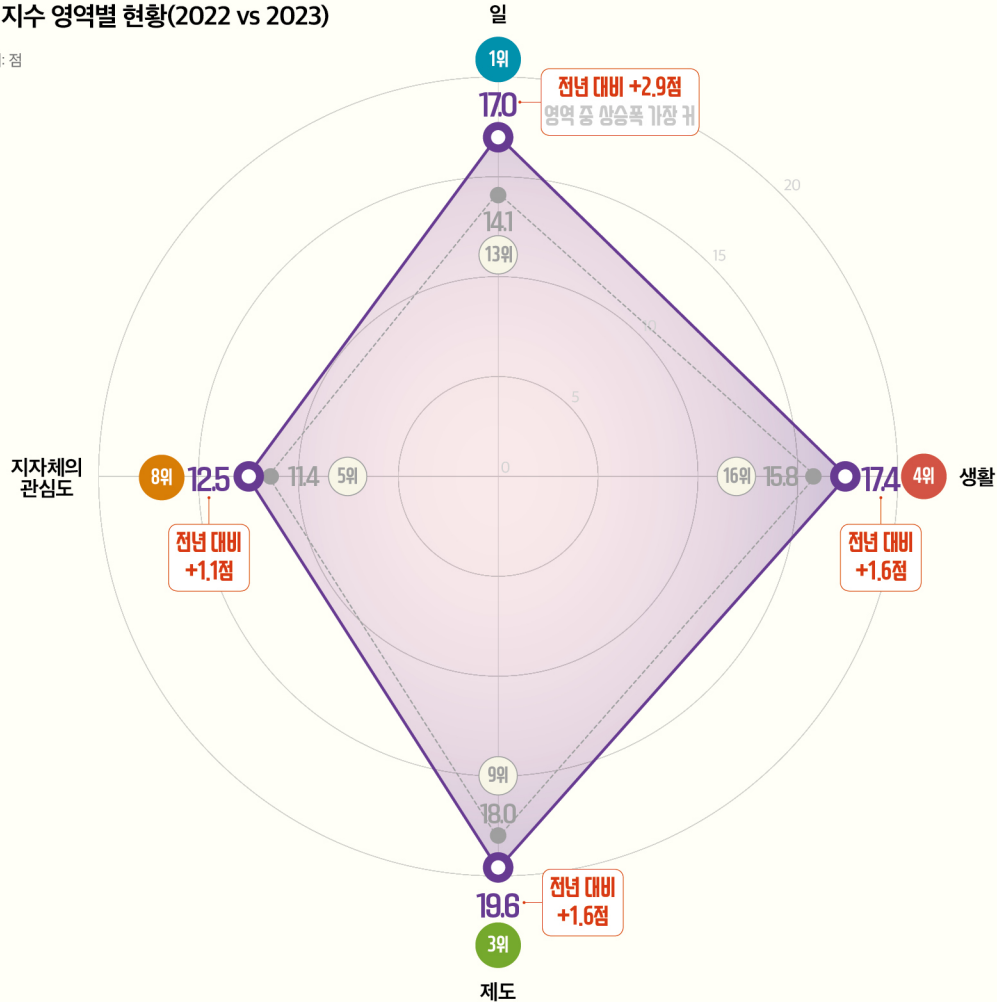
·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 전년 대비 상승폭 가장 커

4개 영역별 대전의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살펴보면, ‘일’ 17.0점(1위), ‘생활’ 17.4점(4위), ‘제도’ 19.6점(3위), ‘지자체의 관심도’ 12.5점(8위)으로 2022년과 비교해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아졌다. 가장 크게 점수가 올라간 ‘일’ 영역은 지난해(14.1점, 17개 시·도 중 13위)에 보다 2.9점 증가해 1위를 차지했다. ‘생활’과 ‘제도’ 영역은 전년 대비 1.6점 증가, 각각 4위와 3위로 올라섰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전년 대비 1.1점 증가했으나 세 단계 하락한 8위로 밀려났고, 1위와의 격차(1위보다 -4.4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일·생활 균형 지수 영역별 현황(2022 v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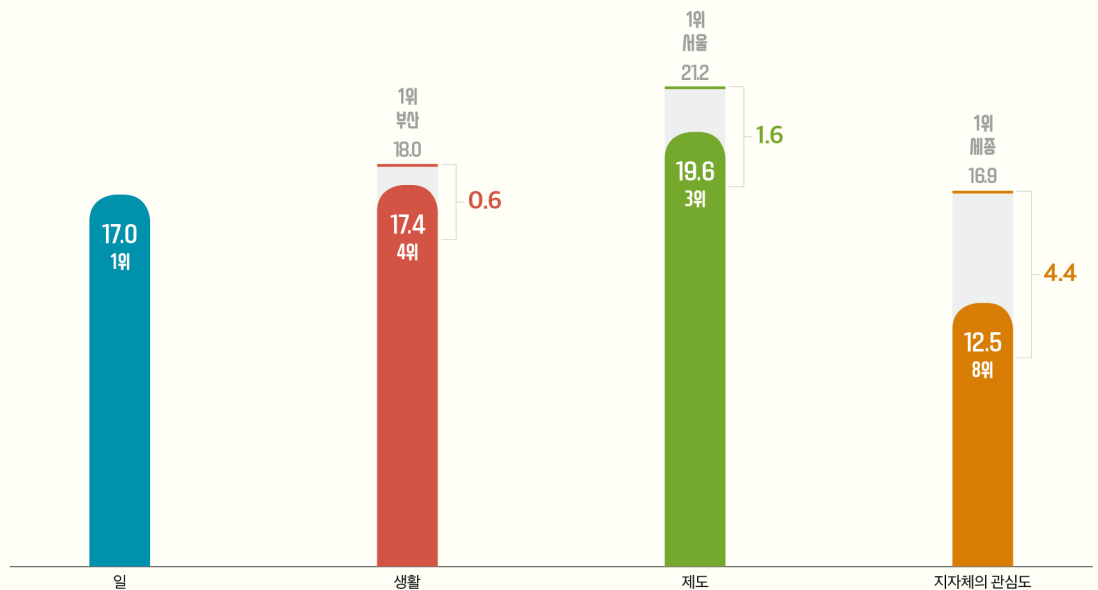
● 2022년 ● 2023년 단위: 점



1위와의 격차가 가장 큰 영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별 1위와의 격차(2023)

■ 대전 ■ 1위지역 단위: 점



·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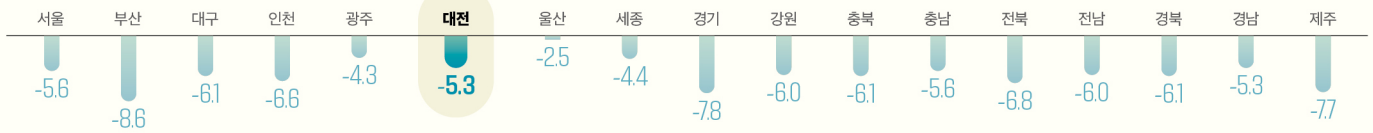
순위가 가장 높은 영역

대전 총 근로시간 감소하고, 유연근무 도입률과 이용률 크게 증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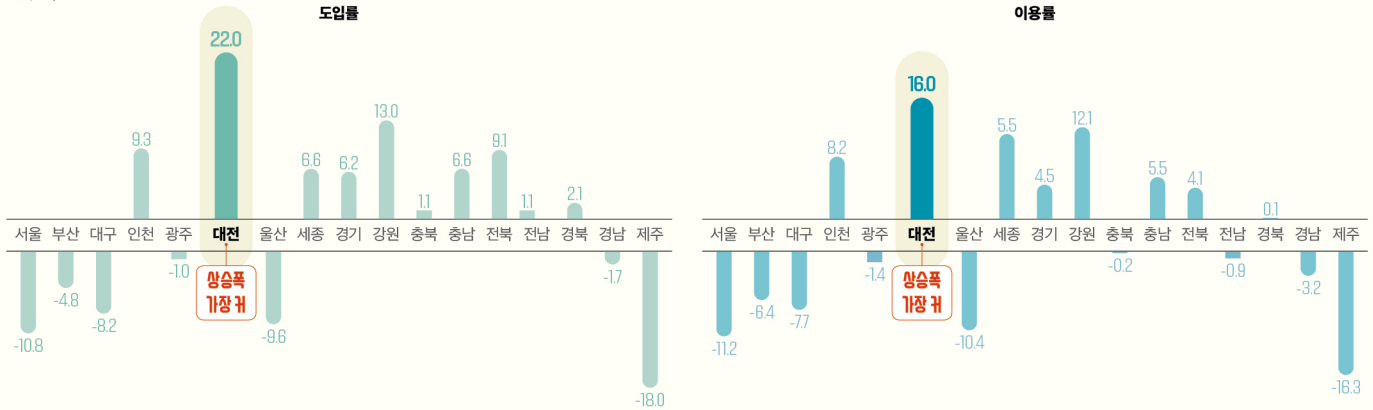
4개 영역 중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일' 영역을 살펴보면, '총 근로시간'은 감소, '유연근무제도 도입률'과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의 증가가 눈에 띈다. 대전의 총 근로시간은 2022년과 비교해 5.3시간 감소했고, '유연근무제도 도입률'은 전년보다 22.0%p,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은 16.0%p 올랐다. 도입률과 이용률 모두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이다. 한편 여섯 가지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전 지역 사업체 비율은 60.9%로 나타났다.

시도별 총 근로시간 증감 현황(2023)



시도별 유연근무제도 도입률·이용률 증감 현황(2023)

단위: %p



순위가 가장 낮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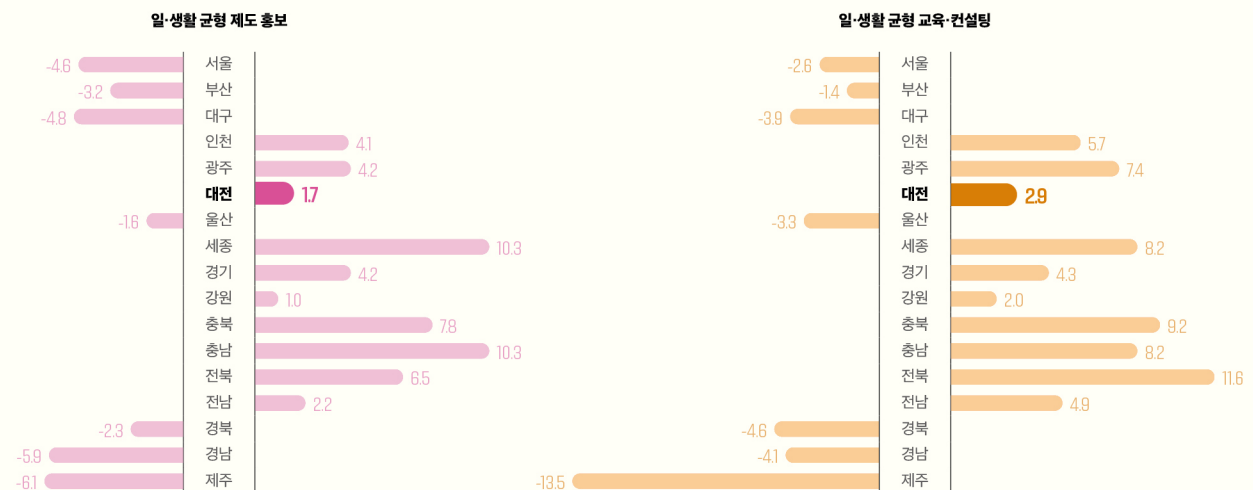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컨설팅 늘려야

지자체 관심도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4개 영역 중 1위와의 격차가 가장 크고 순위가 가장 낮다. 지표의 특성상 통계값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홍보'는 2022년 대비 1.7점, '교육·컨설팅'은 2.9%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크지 않아 영역별 지수 순위에서 밀렸다.

시도별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및 교육·컨설팅 증감 현황(2023)

단위: 점, %p



·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증감 현황(2023)은 2022년 대비 산출된 수치임(2023년-2022년)

·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가 포함됨

· 일·생활 균형 교육·컨설팅은 경험 사업체 비율로 산출됨

·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